



광주 FC가 7일 광양으로 건너가 전남 드래곤즈와 올 시즌 마지막 '엘로 더비'를 갖는다.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팀 최다승인 10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지난 9월 인천과의 경기에서 김호남의 골이 나온 뒤 함께 기뻐하고 있는 광주 선수들. <광주 FC 제공>

최다승 vs 연패 탈출... '엘로더비' 최종전

K리그 클래식 36R 광주, 창단 첫 '최다승' 10승 도전...전남, 9위 사수 안간힘

10승·10경기 무패 기록과 9승 사수를 놓고 '엘로더비'가 펼쳐진다. 프로축구 광주 FC와 전남드래곤즈가 7일 오후 2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2015 K리그 클래식 36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광주에게는 기본 좋은 날이다. 이번 주말 광주는 특별한 '10·10' 기록 도전에 나선다. 클래식 무대에서의 창단 최다승(10승)과 전남전 10경기 연속 무패 기록이 걸려있다. 광주는 첫 만남에서 0-2패를 기록했지만 이후 9번이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를 남기지 않았다. 전남전 9경기 무패(5승4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10경기 연속 무패 기록과 함께 광주의 창단 최다승도 동시에 완성된다. 클래식 리그 잔류 확정이라는 목표를 이룬 광주는 최다승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쫓고 있는 중이다. 광주의 수비수 김영빈에 눈길이 쏠린다. 프로 2년차인 김영빈은 올 시즌 전남을 만나면 필필 날았다. 앞선 3번의 대결에서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두 골을 집어넣었다. 한 차례 무실점 경기도 이끌어내는 등 '전남 길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강렬한 몸싸움에 장점인 김영빈은 탁월한 위치선정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

에 힘을 보탤다. 자신감 넘치는 김영빈이 이번 대결에서도 공·수를 이끌 예정이다. 10-10에 도전하는 광주와 달리 전남은 10위 추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규라운드 최종전에서 순위가 역전되면서 하위 그룹에서 스플릿 라운드를 치르게 된 전남은 시즌 막판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다. 최근 5연패를 비롯해 12경기에서 5무7패를 기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장점이던 화력이 잠잠해지면서 뒷맛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앞선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5골을 내주는 등 최근 8경기 실점이 17점에 이른다. 연패로 팀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레안드리누까지 경고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면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그러나 전남입장에서도 연패를 탈출하고 순위 추락을 막아야 한다. 35라운드 현재 전남이 10승12무13패(승점 42), 광주가 9승12무14패(승점 39)로 나란히 9위와 10위에 랭크됐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두 팀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광주가 2골차 이상으로 전남을 제압한다면 10승을 채우면서 9위에 오르게 된다. 전남전 승리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광주와 지독한 열세에서 벗어나 연패를 끊겠다는 전남. 지역 라이벌의 올 시즌 마지막 '엘로더비'에 축구팬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연습뉴스>



PO 두산전 깜짝 투구 NC 나성범 "구속 150km 자신 있지만 타자 역할에 매진하겠다"

아무리 플레이오프 경기에 마운드에 올라 시속 147km의 강한 공을 뿌렸어도, 나성범(26·NC 다이노스)은 타자다. 프리미어 12 국가대표 외야수인 나성범은 지난 3일 대표팀 훈련이 열린 고척스카이돔에서 취재진과 만나 투수로 등판한 경험을 기본 좋게 돌아보면 서도 타자로서 꾸는 꿈을 이야기했다. 나성범은 지난달 24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4-6으로 지던 9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익수 자리에 있다가 마운드로 자리를 옮겼다. 첫 타자 로메로에게는 초구에 안타를 허용했지만, 다음타자 오재원은 3구째에 3루수 땅볼로 잡아냈다. 4개 공의 구속은 시속 146~147km에 이르렀다. 나성범은 "큰 경기에서 저를 쓰리라 생각 안 했는데 좋은 경험이었다"며 "시즌 때도 못 던졌는데, 플레이오프라는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던졌다. 타자도 들어갈 때보다 응원 소리가 더 컸다. 타자일 때도 그렇게 응원해주셨으면 했다"며 웃었다. "시속 150km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나성범은 "자신감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재원이 "투수하라"고 말했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학생 시절 '좌완 에이스'로 활약하던 나성범의 프로 등판은 그만큼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나성범은 "타자와 투수를 다 하는 것은 버겁다"며 타자 역할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성범은 시속 160km대 직구를 던지면서 타격 능력도 좋은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21·닛폰햄 파이터스)와 비교되기도 한다. 오타니는 오는 8일 한국과 일본의 프리미어 12 개막전에서 일본 대표팀 선발투수로 등판한다. 나성범은 "영상을 봤는데 오타니는 대단한 선수더라. 공략법은 거위봐야 알 것 같다"고 의욕을 보였다. 좋아하는 일본 선수로는 야나기타 유키(28·소프트뱅크 호크스)를 꼽았다. 야나기타는 올해 정규시즌에서 타율 0.363, 34홈런, 32도루를 기록하며 '트리플 스티(타율 3할·30홈런·30도루)'를 달성했지만 부상으로 프리미어 12 일본 국가대표에는 합류하지 못했다. 나성범은 "같은 외야수이기도 하고, 스윙하는 모습이 좋다. 출루율도 높고 발도 빠르다. 내가 하고 싶은 야구 스타일"이라며 "멋있어 보였다"며 그런 야구를 하는 타자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더 큰 무대도 그려보고 있다. 그는 "대표팀에서는 선배들과 새롭게 친해할 수 있어 좋다"며 "지금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특히 박병호 형처럼 먼저 (메이저리그로) 나가는 선배들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기뻐했다. <연습뉴스>

이정용 발목 부상 또 월드컵 예선 못뚫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격수 이정용(크리스탈팰리스)이 또 오른발을 다쳤다. 이정용은 3일(현지시간) 컨디션 점검차 브리스톨시티의 21세 이하(U-21)팀과의 경기에서 출전했지만 전반 25분 상대팀 선수와 충돌한 뒤 교체됐다. 현지매체 크로이든 어드버타이저는 "충돌 과정에서 오른발 뒷부분에 심한 충격을 입은 이정용은 절뚝거리면서 그라운드를 떠났다"며 "한동안 경기에서 출전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연습뉴스>

크리스탈팰리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정용이 발목을 다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정용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5, 6차전에 나설 23명의 대표팀에도 포함됐지만, 회복 여부에 따라 출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정용은 지난달 열린 쿠웨이트와의 월드컵 예선에도 오른쪽 발목 염좌 탓에 소집에서 제외됐다. <연습뉴스>

히딩크, 오늘 평양 방문 '드림필드' 착공식 참여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69)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5일 북한을 방문한다. 4일 거스히딩크재단 등에 따르면 히딩크 전 감독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풋살축구장인 '드림필드' 건립을 위해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히딩크 전 감독은 재단 관계자 등과 함께 5일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으로 가서 드림필드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북한 축구 관계자 등과의 만나 축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7일 돌아올 계획이다. 그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북한으로 드림필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축구하고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라고 방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히딩크재단은 2007년부터 시각장애인과 어린이들을 위해 국내 13개 드림필드를 건립해왔다. <연습뉴스>

315억원 AFC 챔피언스리그 10경기 출전 전복 현대, 브랜드 노출 효과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전복 현대가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에 따른 브랜드 노출 효과가 315억원에 이르렀다고 4일 밝혔다. 전복은 브랜드 전문 분석업체 레퍼컴 코리아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AFC 챔피언스리그 10경기를 치르는 동안 전세계 TV 중계를 통해 약 38억원, 온라인 기사로는 253억원, 국내 인쇄 매체를 통해 24억원에 이르는 '현대' 브랜드 노출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전복에 따르면 경기 중계 및 스포츠 뉴스,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등을 통한 영상 브랜드 노출은 중국에서 165시간45분이 이뤄져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동 지역(101시간45분), 카리브해 연안 국가(42시간), 한국(40시간28분) 순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연습뉴스>



받아라

이용대가 4일 전북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2015 전주빅터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 그랑프리골드' 남자 복식 32강 대안팀과의 경기에서 스매싱하고 있다. <연습뉴스>

2015 US오픈 2회전 진출 정현 男프로테니스 기량발전상 후보

세계 랭킹 122계단 상승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19·삼성증권 후원)이 남자프로테니스(ATP) 2015 시즌 기량발전상 후보에 선정됐다. ATP 투어가 최근 발표한 2015시즌 기량발전상 후보로 세계 랭킹 51위 정현을 비롯해 보르나 초리치(46위·크로아티아), 도미니크 팀(19위·오스트리아), 베나드 토믹(18위·호주) 등 네 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량발전상은 ATP 투어 동료 선수들의 투표로 정해지며 9일 투표가 마감된다. 지난해에는 11월 초에 수상자를 발표했다. 후보 4명 가운데 정현의 이름을 가장 먼저 거명한 ATP 투어는 "올해가 투어에서 보낸 첫 시즌이었다"며 "지난해 말 그의 세계 랭킹은 173위였다"고 정현의 가파른 순위 상승을 소개했다. 또 투어보다 한 등급 아래인 웰린저 대회에서 올해 네 번이나 우승한 사실도 전했다. 정현과 나이가 같은 초리치는 지난해 연말 91위에서 올해 7월 3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선수다. 정현은 2013년 윈블던 주니어 남자단식 4회전에서 초리치를 2-0으로 꺾고 4강에 오른 바 있다. 팀은 정현, 초리치보다 세 살 많은 선수로 올해 투어급 대회 단식에서 세 차례나 우승, 이미 세계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다. 다만 지난해 연말 세계 랭킹이 이미 39위로 높았기 때문에 순위 상



승력이 정현이나 초리치에 비해 크지 않았다. 토믹은 1992년생으로 팀보다도 한 살 많은 선수다. 올해 한 차례 투어 대회 우승 경력을 포함해 통산 3승을 기록 중이며 지난해 말 순위는 56위였다. 역대 기량 발전상 주요 수상자로는 라파엘 나달(2005년), 노바크 조코비치(2006년·2007년), 조 윌프리드 송가(2008년), 존 이스너(2009년)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다. ATP 연말 시상식은 성적에 의한 시상, 팬 투표에 의한 시상, 동료 선수 투표에 의한 시상으로 나뉜다. 연말 순위 세계 랭킹 1위를 지킨 단·복식 선수와 세계 랭킹 100위 이내 가운데 최연소 선수에게 주는 상이 성적에 의한 시상이고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복식 선수는 팬 투표로 통한 시상 부문이다. 또 동료 선수 투표로는 기량 발전상과 올해의 컴백 선수상, 스포츠맨십 상 등의 수상자를 정한다. <연습뉴스>